

차세대연구자의 안과 밖

한국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계의 구조적 위기와 대안적 실천 탐색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 글은 한국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계의 구조적 위기 속 차세대연구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안(제도권 내부의 모순)’과 ‘밖(제도권 너머의 대안적 실천)’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학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연구자를 둘러싼 담론 지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차세대연구자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학계는 물질적 토대의 붕괴, 정규직-해외박사-양적 성과 중심의 다층적 위계와 폐쇄성, 그리고 학문 공동체 기능의 부전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쟁적인 외부과제 중심 시스템은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위협하며 연구자들의 이력을 파편화시켰고, 정규직 중심의 위계, 학벌주의(특히 해외 박사 선호), 양적 성과주의(SSCI 중심 평가) 등은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동했다. 세부 전공 간 분절성과 서울 중심의 네트워크 고착화는 학계의 폐쇄성을 심화시켰다. 차세대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연령이나 능력이 아닌 ‘비정규성’이라는 불안정한 위치성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되며, 학술 장 유지에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거나 소외되는 경험을 겪었다. 학계의 젠더화된 구조가 돌봄 책임을 가진 연구자들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제도권의 한계는 대학 ‘밖’에서의 대안적 학문 공동체 구성을 추동했다. 이들 공동체는 지적 역동성과 수평적 연대의 거점으로 기능했으나, 지속가능성의 난제 그리고 제도권과의 양가적 관계에 직면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차세대연구자의 위기가 학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경고임을 강조하며, 학술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내적 분절성 극복과 외적 종속성 탈피, 민주적·수평적 생태계로의 전환, 그리고 대학 바깥 공동체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핵심어: 차세대연구자, 신진학자, 학문후속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계, 학문 재생산 위기, 학문 공동체

* playborer@gmail.com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AI 관계의 재구성

상징 체계와 이데올로기적 함의*

권하나 경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정정주 경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늘날 미디어는 AI를 인간의 보조 도구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서사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MBC 예능 프로그램 <PD가 사라졌다>(2024)를 대상으로, AI가 미디어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의미 구조와 권력관계, 이데올로기적 질서를 통해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I PD 옴파고는 가상 인간의 형상으로 등장해 출연자 선발, 미션 설계, 평가와 보상을 주도하며 기존 인간 중심의 연출 권위를 대체하는 행위자로 재현되었다. 인간 출연자들은 순응과 저항, 협력과 반발의 위치로 분화되며, 인간/AI, 자율성/통제, 창의성/합리성의 이항 대립 속에서 관계를 재조정한다. 프로그램은 AI의 판단과 통제를 객관적 권위로 정당화하는 한편, 그 불투명성에 대한 인간의 의구심과 저항을 병치함으로써 기술 권력에 대한 매혹과 경계심을 동시에 환기한다. 나아가 '사라진 인간 PD'와 '등장한 AI PD'의 대비는 인간 중심 질서의 해체를 넘어 인간-AI 공존을 미래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봉합하는 신화적 효과를 산출한다.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시대 미디어가 인간-AI 공진화를 어떻게 가시화하고 정당화하는지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인공지능, 미디어 재현, 내러티브 분석, 평평한 존재론, 공진화

* 이 논문은 권하나의 2025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khana0915@knu.ac.kr, 제1저자

*** cjchung@knu.ac.kr, 교신저자

텍스트 스케일링을 적용한 방송 뉴스 정파성의 계량 분석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메인 뉴스를 중심으로*

박찬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수료**

오경수 송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교수****

본 연구는 텍스트 스케일링 분석인 워드스코어 기법을 방송 뉴스 텍스트에 적용해 국내 방송사의 정파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2018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 회의록을 참조 문서로 삼아 7개 방송사(KBS,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의 메인 뉴스 기사 텍스트를 분석해 날짜별 정파성 지수의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 다층모형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TV조선은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 회의록과 유사한 정파성을 보인 반면, JTBC와 MBN은 채널A나 TV조선과의 차별화를 통해 보다 진보적이거나 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MBC가 더불어민주당 참조 문서와 가장 유사한 언어·이슈·의제 구성을 보였고, KBS의 경우 정권 교체에 따른 평균 변화의 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방송사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워드스코어의 점진적인 이동 추세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방송사의 지배구조(공영/민영)나 채널 유형(지상파/종합편성채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해서만 채널 유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방송사의 정파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방송사 정파성의 장기 추세를 수치화하고 구조적 요인과 결부해 제시함으로써, 방송 뉴스 정파성 연구에 텍스트 스케일링을 활용한 계량적 접근의 유용성과 한계를 제시한다.

핵심어: 텍스트 스케일링, 워드스코어, 방송사, 정파성, 정치적 편향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숙명여대 이미나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cura47@naver.com, 주저자

*** oks@ssu.ac.kr

**** sowoonsr@korea.ac.kr, 교신저자

생성형 AI로 제작된 친환경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

광고 소구 유형과 AI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송유진 한세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조교수**

김단우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학부생***

생성형 AI 기반 친환경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이 친환경 메시지의 수용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린워싱 인식으로 귀결되는지에 관한 실증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친환경 광고에서 광고 소구 유형과 수용자의 AI 리터러시 수준이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친환경 광고를 활용하여 2(소구 유형: 정보 중심 vs. 가치 중심) × 2(AI 리터러시: 고 vs. 저) 집단 간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보 중심형 소구는 가치 중심형 소구에 비해 브랜드 태도와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유의하게 높였으며, 광고 태도와 그린워싱 지각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AI 리터러시는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주효과를 보였고,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는 소구 유형과 AI 리터러시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어, AI 리터러시가 높은 집단에서는 정보 중심형 소구의 효과가 강화되는 반면 AI 리터러시가 낮은 집단에서는 가치 중심형 소구의 상대적 우위가 관찰되었다. 또한, 가치 중심형 소구 조건에서 AI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린워싱 지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활용 맥락을 친환경 광고 효과 연구의 핵심 맥락으로 반영하고, 광고 소구 효과에 대한 AI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AI 기반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정교화한다. 실무적으로는 타겟 수용자의 AI 리터러시 수준에 맞춰 메시지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생성형 AI, 친환경 광고, 메시지 소구, AI 리터러시,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그린워싱

* 이 논문은 2024년도 한국방송학회-GS리테일 신진학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yjsong066@gmail.com,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dantumpl@gmail.com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

유튜브 규제 태도의 귀인 관점 분석*

송해엽 국립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오세욱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영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본 연구는 유튜브 뉴스 이용자들이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중 누구에 대한 규제를 더 지지하며, 그 선호가 어떤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제3자효과 연구가 규제 지지 '수준'을 설명해왔다면, 본 연구는 귀인 관점을 도입하여 규제 '대상' 선호를 탐색하였다. 유튜브 뉴스 이용자 1,736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과 SUR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필요성 인식은 크리에이터 규제와 플랫폼 규제 지지를 모두 높였으나, 그 영향은 플랫폼 규제에서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 제3자 지각은 크리에이터 규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두 규제 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제적 콘텐츠 노출 경험은 크리에이터 규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쳐, 직접 경험이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책임 귀인으로 이어진다는 행위자 귀인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장 주목할 발견은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플랫폼 규제보다 오히려 크리에이터 규제를 더 강하게 지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용자들이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궁극적 책임은 콘텐츠 생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을 보여주며, 미디어 규제 연구에서 귀인 관점의 유용성을 확인해 준다.

핵심어: 유튜브 뉴스, 플랫폼 규제, 크리에이터 규제, 제3자효과, 귀인

* 이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음.

** hysong@kunsan.ac.kr, 제1저자

*** kinpah@sunmoon.ac.kr, 공동저자

**** jungyj@empas.com, 교신저자

생성형 AI 지속 이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인지된 혜택, 비용, 신뢰도를 중심으로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은이 인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이용자는 다차원적 혜택과 복합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해야 하는 가치판단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인지된 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의 인지된 혜택과 비용이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였다. 나아가 생성형 AI 신뢰도가 인지된 혜택·비용과 지속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를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혜택 가운데 인지된 확장과 기능적 혜택이 지속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정서적 혜택과 역량 강화 혜택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인지된 비용 중에서는 기능적 비용만이 지속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생성형 AI 신뢰도는 인지된 사회정서적 혜택과 지속 이용의도 간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였는데, 이는 신뢰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생성형 AI를 실용적·기능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인지된 창의적 비용과 이용의도 간 관계에서 신뢰도의 조절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신뢰가 높은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생성형 AI 한계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 이용자가 인지된 확장을 지속 이용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면서도, 기능적 비용에 대한 손실 회피 경향이 공존함을 보여준다.

핵심어: 생성형 AI, 인지된 가치, 인지된 혜택, 인지된 비용, 생성형 AI 신뢰도, 지속 이용

* hjshim@kisd.re.kr, 제1저자

** eykim@inu.ac.kr, 교신저자

유튜브 숏폼 정치 콘텐츠의 연성화 특성과 이용자 반응

2024년 정기 국정감사 사례 분석

윤지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경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 연구는 유튜브 숏폼 정치 콘텐츠의 연성화 특성에 주목해 콘텐츠 이용자의 정량적·정성적 반응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2024년 국정감사 관련 숏폼 동영상 콘텐츠 382개를 표본 추출해 연성화 특성을 내용 분석했다. 아울러 해당 콘텐츠에 달린 댓글 32,795개를 전수 수집하고 주제를 유형 분류했다. 먼저, 숏폼 동영상 콘텐츠의 연성화 특성(감정성, 주관성, 개인화, 선정적 상호작용성)이 정량적 이용자 반응(조회수, 댓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연성화 특성과 댓글 반응 유형(정치·유희, 정치·비유희, 비정치·유희, 비정치·비유희)의 관계 패턴을 살폈다. 분석 결과, 선정적 상호작용성, 감정성, 개인화는 모두 조회수와 댓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댓글 반응 유형과 관계에서 연성화 특성의 영향은 일정한 패턴을 드러냈다. 감정성과 개인화는 정치적 반응을 약화시키고 단순한 유희형 반응을 촉진하는 결과를 보였다. 주관성은 정치 관련 반응에서 풍자와 조롱 같은 유희 반응을 강화했고, 선정적 상호작용성은 정치적 반응 전반을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숏폼 정치 콘텐츠의 연성화 특성이 이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했다.

핵심어: 유튜브, 숏폼 정치 콘텐츠, 국정감사, 조회수, 댓글수, 댓글 반응 유형

* yunjh@yonsei.ac.kr, 주저자

** kkmo@yonsei.ac.kr, 교신저자

MOBA 게임에서의 트롤링 행동 확산

복합 전염 이론 기반 수용자 중심 행동 변화 분석*

이상혁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강의 교수**

본 연구는 MOBA 게임에서 트롤링 행동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행동 빈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리그오브레전드>와 <도타2>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 욕설, AFK, 의도적 죽음과 같은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고 라운드 간 변화량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팀원과의 트롤링 행동 빈도 차이가 클수록 다음 라운드에서 개인의 트롤링이 증가해 행동 확산이 단순 노출보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 촉발됨을 보였다. 반면 동일 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팀원이 많을수록 개인의 트롤링이 오히려 감소하는 반확산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트롤링 확산이 집단적 규범과 사회적 비교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기제에 의해 형성됨을 시사한다.

핵심어: 트롤링, 복합 전염, MOBA, 행동 확산, 사회적 강화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odhinn84@snu.ac.kr

신체 재현과 젠더 규범성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소현 상명대학교 계당교육교육원 초빙교수**

김은영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정사강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2021년 1월에서 2024년 6월 사이 방영된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 신체적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 16편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젠더 규범성과 의미화 기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신체 능력을 겨루는 예능 프로그램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프로그램들의 세부 장르적 속성, 출연진 구성과 역할, 출연자의 출신 배경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출연진 성별 구성에 따라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각 프로그램의 포맷 구성 방식을 분석하였으며, 신체 재현과 젠더, 서바이벌 예능과 젠더 규범성, 경쟁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신체 담론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신체 재현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서바이벌 예능에서 여성 출연자의 비중은 남성 출연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 신체는 주변화되거나 일탈적인 것으로 재현되는 등 젠더화된 위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여성 출연자들은 여성 신체의 다양성을 가시화하고 기존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균열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서바이벌 예능의 남성중심적 도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바이벌 예능이 젠더 규범성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여성 신체와 여성성을 둘러싼 담론적 지형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신체 이미지, 젠더, 서바이벌 예능, 재현, 신자유주의 담론

* 본 연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24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Isohyun41@gmail.com, 제1저자

*** eykim1508@gmail.com, 공동-저자

**** egofatum@gmail.com, 교신저자

포스트텔레비전 시대 창의노동의 재구성

MBC <PD가 사라졌다> 생산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정현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한 MBC 프로그램 <PD가 사라졌다>의 제작 과정을 포스트텔레비전 시대 미디어 생산의 제도적 실험이자 징후적 사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창의노동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존 논의가 인공지능 도입을 주로 자동화와 대체의 문제로 접근해온 반면, 이 연구는 프로젝트 중심 생산 구조의 형성, 창의성의 외부화, 그리고 전문성의 탈중심화와 위계 재구성을 핵심 분석 축으로 삼는다. 제작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사례 분석 결과 <PD가 사라졌다> 사례는 방송 제작이 외부 기술기업과 자본을 결합한 프로젝트 기반 연결망 체제로 조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창의성은 노동자의 내적 성취감보다 기술 실험의 상징성과 혁신 담론을 통해 외부적으로 승인되는 자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방송 전문직의 숙련은 주변화되고 기술 인프라를 매개하는 노동이 창의적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창의성의 외부화'와 '전문성의 탈중심화'로 개념화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이후 미디어 생산에서 창의노동의 의미와 위계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핵심어: 생성형 인공지능, 미디어 생산, 미디어 노동, 창의성, 포스트텔레비전

* 이 논문은 2024년도 한국방송학회-GS리테일 신진학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maryjlee1205@gmail.com

영상편집기자들의 뉴스 제작 경험과 개선 방안 인식

비릴리오의 드로몰로지와 피크노렙시 사유를 중심으로

이홍명 SBS A&T 보도영상본부 영상편집기자*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연구는 디지털 뉴스 제작 환경에서 영상편집기자들이 겪는 경험을 분석해 대안적인 뉴스 제작 환경과 실천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론적으로 디지털 사상가 폴 비릴리오(Paul Virilio)의 드로몰로지(dromologie)와 피크노렙시(picnolepsie) 사유를 검토하고, 속도 중심의 뉴스 제작 시스템 속 영상편집기자의 직무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 주요 방송사에 재직 중인 영상편집기자 1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뉴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심리적 경험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가적 태도를 보였다. 즉, 영상편집기자들은 속보 경쟁과 충격적인 영상의 반복 노출, 그리고 기계적 편집 과정에서 인지 단절과 윤리적 판단이 흐려지는 감각의 마비를 경험하였다. 한편, 뉴스 생산의 공동 제작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인의 감각 회복 시도와 조직적 지원 요구를 통해 기계적 속도를 조절하려는 피크노렙시의 능동적 실천 양상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상편집기자의 실제 경험을 분석해 속도 중심의 뉴스 제작 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심리 회복 체계 구축 등 이용자의 능동적 실천과 구조적 개선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영상편집기자, 뉴스 제작, 드로몰로지, 감각의 마비, 피크노렙시

* hongmyung@sbs.co.kr, 주저자

** jskang1@cau.ac.kr, 교신 저자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보수 정치 유튜브 이용, 부정선거 음모론 신뢰, 정치적 감정극화 및 반민주적 태도의 연관성*

정낙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현기득 아키타 국제대학교 글로벌스터디즈 프로그램 교수***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미혜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본 연구는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공동체와 민주주의에 어떤 위협을 가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허위담론이 확산된 경로로 보수 정치 유튜브 채널 시청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보수 정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적 상대 진영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과 적대적 위협 인식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위헌적 계엄 및 사법부 위협과 같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보수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 시청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을 통해 보수 정치 유튜브 채널 이용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치적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민주적 태도 지지로 이어지는 간접적 영향 경로가 유의하게 작동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일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믿음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치관여도 변인, 뉴스 미디어 이용 변인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정치적 상대 집단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 및 위협 인식, 사법부 위협에 대한 정당성 인식, 계엄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비교적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믿음은 보수 성향 정치 유튜브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진보 언론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 결과, 부정선거 음모론은 보수 정치 유튜브 채널 이용과 진보 언론 이용이 정치적 상대 진영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반민주적 태도 지지에 미치는 정적 또는 부적 영향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6-0020]

** paradise@swu.ac.kr, 주저자

*** hyun@aiu.ac.jp

**** yg_chae@hufs.ac.kr

***** mhseo@skku.edu, 교신저자

공영방송 제도의 표류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사장 선임을 중심으로*

정영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 연구원**

이 연구는 한국 사회 공영방송 제도의 '표류' 양상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의 결정적 행위자로서 노동조합이 출범한 1987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를 분석 대상 기간으로 하여 정권 교체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보고 민주화 운동 시기(1987년~1997년), 진보 정부 시기(김대중·노무현 정부, 1997년~2007년), 보수 정부 시기(이명박·박근혜 정부, 2008년~2017년), 진보·보수 교체 시기(문재인·윤석열 정부, 2017년~2024년) 등 네 개의 시기로 구분했다. 공영방송 관련 법령, 기존 문헌, 언론 보도 검토와 함께 KBS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1987년 이후 한국의 공영방송 제도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결정적 분기점에도 불구하고 정치병행성과 후견주의의 경로의존성을 따랐으며, 행위자들은 제도의 공생자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표류 양상으로 변화해 왔음을 확인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는 정치적 맥락에서 행위자들의 거부 가능성이 높고 제도 해석과 집행에 있어 재량권이 높은 제도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당은 제도 개선을 도모할 유인이 적고 현존 제도의 혜택에 의존하는 공생자로서 행위했다. 노조는 정치권력에 대항하면서도 경영진과의 상호작용 속에 권력을 분점했고, 조직 내 권력 투쟁과 맞물리며 각기 보수, 진보 정당과 연합하는 정치병행성을 강화했다. 공생자로서 공영방송 제도의 행위자들은 정파성을 축으로 대통령-여당-방송통신위원회-이사회로 연결되는 상부구조에 조응하여 이사-경영진-노조로 이어지는 하부구조를 내재화했다. 공영방송 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축소판으로 진화하였으며, 공영방송의 위축과 쇠퇴라는 표류 양상에 직면했다. 공영방송 제도의 진화는 단절적 균형을 지향할 때 가능하다. 2025년 8월의 방송법 개정이 공영방송 제도 변화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핵심어: 공영방송, 역사적 제도주의, 결정적 분기점, 경로의존, 표류, 공생자, 노동조합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358).

** jungyi@empas.com